

'영모정' 국가문화유산 승격 나선다

진안군, 승격 위한 학술대회 개최... 학술적·역사적·건축학적 가치 재조명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1984년 4. 1.지정)인 진안 영모정을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승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안 문화의 집(진안군 진안읍 대성길5)에서 진안군 주최, 전주비전대학 주관으로 영모정의 학술적·역사적·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진안 영모정은 미계 신의련의 효행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1869년(고종6년)에 세워진 정자로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에 위치한다. 정면 4칸의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와를 사용하고, 누각 아래 사면의 각 기둥은 거북머리 모양의 원형초석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돌너와를 사용한 정자가 국내에 거의 없어 영모정의 건축학적 의미는 더욱 높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지성 교수(전주비전대학교)의 사회로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주제 1 신정일 이사장(사단법인 길)의 진안 영모정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발표와 우덕희 원장(진안 문화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 2 박용신 교수(전주비전대학교)의 진안 영모정 건축학적·학술문화적 성격에 대한 발표와 이동희 교수(전 전주역사박물관)의 토론 △주제 3 심정민 교수(전주비전대학교)의 진안 영모정의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에 대한 발표와 김진 실장(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책연구원)이 토론한다.



영모정 전경

△주제 4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의 진안 영모정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와 문승현 부장(문화유산 국민신탁)의 토론 등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의 시간에는 홍성덕 교수(전주대학교)를 좌장으로 우덕희 원장, 이동희 교수,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진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영모정의 국가문

화유산 승격을 추진 중이며 이번 학술대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에 지정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검토,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시행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통과 현대 공존하는 상생 협력 미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월 18일 '전북학생 시 페스티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5월 18일 본청 앞마당과 시청각실에서 '2024년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생, 협력,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시 페스티벌은 대회마당·체험마당·공연마당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먼저 대회마당은 시 낭송대회, 친구와 함께 표현하는 시화전, 시를 입힌 한지패션쇼 등 3개 분야로 열린다.

국내 시인의 시를 3분 이내에 암송하기, 친구와 함께 당일 창작한 시에 어울리는 그림 표현하기, 지도교사와 학생 5인 이상이 팀을 이뤄 한지에 시를 표현한 옷을 입고 패션쇼 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

길 수 있다. 또 대회마당은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체험마당에서는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시, 시가 쿠키를 만한다면, 시를 품은 머그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공연마당에서는 오케스트라, 시극, 오페라 앙상블, 시 낭송 등이 마련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시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길 바란다"면서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축제를 통해 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가 시민들이 연주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강습을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예술회관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예술회관의 2024년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을 참고해 관련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시실은 6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6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연장은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의 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일요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이번 하반기 대관은 전시실 벽 보수기간을 9월 13~19일, 11월 1~7일까지 총 2회 설정했으며, 이 기간을 제외한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금요일에 만나요' 워라벨 주간행사 진행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주제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워라벨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일·생활균형의 가치를 알리고, 도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행사로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공약 제안 △워라벨 틀린그림찾기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인증사진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및 가족친화 인센티브 제공기업(관) O/X 퀴즈 △일·생활균형 홍보영상 SNS 공유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3월 주간행사 '우리가 바꾸는 전북특별자치도 워라벨'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3월 온라인 이벤트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 기존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제도 이외의 차별성과 창의성이 돋보

이는 새로운 제안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워라벨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을 네이버 폼을 통해 제안받는다. 참여자 중 5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내 기업의 일터혁신과 워라벨을 위한 △근무혁신 인센티브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 △일·생활균형 선도기업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주간행사를 시작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도민들의 생활 속 즐거움이 돼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일·생활균형 지수의 상승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및 인스타그램(@jonbukwomen)이나 취업지원팀(253-385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진행

악기 진입장벽 낮추고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익산시가 시민들이 연주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악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강습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악기를 쉽게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반려악기 시대'를 열어가며 악기 강습부터 발표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5개 수강팀을 모집하는데 70개팀, 417명이 신청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를 신청한 시민들은 배우고 싶은 악기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가족·친구·지인과 팀을 꾸려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강습과 차별화된 장점으로 꼽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상반기에는 미니하프, 드럼, 해금 등 15종의 다채로운 악기 강습이 1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우수팀인 '봄나루' 팀은 "춘포와 춘포의 역사를 홍보하고 싶어 신청했는데 지난해 우수팀으로 선정돼 올해도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호미를 들어 발을 가꾸던 우리들이 오카리나를 배워 늦은 나이에 손주들에게도 연주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악기 강습과 발표회에서 멈추지 않고 관공지와 문화소의 지역으로 강사들이 찾아가는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며 "음악이 넘치고 문화예술로 따뜻해지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틀 남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쿠키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